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와 그 意味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장인우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이춘계

目 次

I. 머리말

II. 1. 國朝五禮儀와 家禮書의 발달

2. 禮書에 나타난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 과정의 服飾

3. 15~17세기 殮襲衣의 의미

I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인류는 고대로부터 喪禮에 관한 의식과 절차의 傳統을 엄격히 고수해 왔다. 이와같이 모든 민족이 그 나름대로 고유한 전통을 이어온 것은 아마도 죽음과 來世에 대한 인간의 진지한 태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儒敎의 孟子는 孝에 대해서 “生前의 奉養뿐 아니라, 死後의 葬禮가 가장 큰 孝道이다.”¹⁾라고 하여, 儀禮 가운데 喪禮를 가장 강조하였으며,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절차와 의장을 禮書를 통하여 엄격히 규정했다.

儒敎文化圈에 속한 우리나라는 喪禮에 있어 의례의 形式뿐 아니라 이에 따른 衣服에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 시행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儀禮가 본격적으로 儒敎的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朝鮮時代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國朝五禮儀 및 喪禮備要 喪禮考證 家禮附贅 등의 家禮書에 기록되어 있다.

國朝五禮儀는 王權이 조선왕조를 유교적 사회로 완성하기 위하여 편찬한 국가 儀禮書로써, 국가의 法典的 의미²⁾³⁾를 지니고 있다. 또한 16세기 이후 저술된 많은 禮書는 조선사회의 정치에서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新進士林이 조선사회에서 性

1) 孟子, 難妻下, 養生子, 不足以堂大事, 惟送死, 可以當大事

2) 高英津, “朝鮮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17, 1992

3) 李範稜, “朝鮮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p.377, 1991.

理學的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술한 士林 家門의 家禮書이며, 一般儀禮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였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禮書는 喪禮備要이다.

이러한 國朝五禮儀와 家禮書들은 王朝交替를 한 왕권과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한 士林의 정치적 立志를 위하여 의례의 지침서로써 그 시행력을 지닐수 있었다. 이렇게 왕권과 관료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禮書들은 儒敎文化 理念이 우리 傳統文化속에서 수용됨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선사회에서 儒敎化의 기틀이 된 國朝五禮儀와 喪禮備要의 喪禮를 살피는 것은 조선사회에 정착된 儒敎적 喪禮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喪禮服에는 산자(生者)의 의복인 喪服과 죽은 자의 의복인 殮襲衣가 있다. 이 가운데 喪服은 그 종류가 죽은자와 산자의 親疏關係에 의한 구성원리에 대하여 制度·服飾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 殮襲衣에 관한 연구⁵⁾는 많지 않은 편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15~17세기 조선의례의 기틀이 된 國朝五禮儀와 喪禮備要의 喪禮(초종-대렴)를 통하여 첫째, 喪禮服飾과 殮襲衣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喪禮服飾가운데 殮襲衣의 종류가 신분과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殮襲衣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II. 1. 國朝五禮儀와 家禮書의 발달

喪禮는 葬禮時 죽은자에게 착용시키는 殮襲衣 실행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며, 禮書는 이러한 儀禮의 지침서라 생각할 때 15~17세기 禮書를 살펴봄은 喪禮服飾 및 殮襲衣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의 16세기 특징가운데 하나는 많은 禮書의 편찬으로, 15세기의 國朝五禮儀(1474)를 비롯하여 16~17세기에는 李彥迪의 奉先雜儀(1550) 李滉의 退溪先生喪祭禮問答(1560) 金誠一의 喪禮考證(1581) 金長生·申儀慶의 喪禮備要(1583) 金長生의 家禮輯覽(1599)이 있으며 鄭述의 五服沿革圖(1601) 吳先生禮設祿註(1603), 柳成龍의 喪葬質儀(1600전후)와 喪禮考證(1602), 安訥의 家禮附贅(1628)⁶⁾ 등이 편찬되었다.

禮書를 저자에 따라 구분하면 國朝五禮儀는 국가가 간행한 國禮書와 각 개인이 저술한 家禮書로 구분된다. 한편 家禮書를 저자가 속한 학파에 따라 畿湖學派와 嶺南學派로 분류하면 畿湖學派의 학자인 申儀慶과 金長生의 喪禮備要·四禮便覽과 嶺南學派의 학자인 李彥迪·李滉·金誠一·鄭述·柳成龍·安訥의 奉先雜儀·退溪先生喪祭禮問答·喪禮沿革圖·吳先生禮說祿註·喪禮考證·家禮附贅 등으로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아직은 學派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을뿐 아니라 각 책의 내용에서의 차이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여기서는 단지 저자의 學派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4) 李範稷, 앞책, 400.

5) 成者禧, '殮斂·襲衣', "관동대학교 論文集", 제8집, 1980.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송미경, '염습의(斂襲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金仁淑, '朝鮮王朝 王의 小殮, 大殮, 梓宮衣對에 대한 研究', "服飾" 5호.

朴聖實,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1)', "服飾" 16, 1991.

劉寬順, '韓國壽衣의 文獻의 考察', "服飾" 17호, 1991.

6) 高英津, 앞글, p.17

〈표 1〉 15~17세기 著者の 學派에 따른 禮書의 분류

	國 禮			家 禮 書					
	禮書名	著者	年度	畿湖學派			嶺南學派		
	禮書名	著者	年度	禮書名	著者	年度	禮書名	著者	年度
15세기	國朝五禮儀		1453						
16세기				喪禮備要稍	申儀慶	1580	奉先雜儀	李彥迪	1550
				喪禮備要	金長生·申儀慶	1583	退溪喪制禮答問	李 滉	1560
17세기							喪禮考證	金誠一	1591
							五服沿革圖	鄭 述	1601
							吳先生禮說祿註	鄭 述	1603
							喪禮考證	柳成龍	1602
						家禮附贅	安 訥	1628	

하여 저자의 學派에 따라 영남학과와 기호학과별로 기초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것이 각 學派를 대표하는 것인지도 앞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현존하는 禮書 가운데 喪禮備要是 奎章閣을 비롯한 각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반면 喪禮考證은 현재 奎章閣에 한 본(一冊 卍11727)이 보존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 내용이 柳成龍의 喪禮考證과 동일하다고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그 시대가 朝鮮末期이며 작자미상이다. 이는 喪禮備要가 실행중심의 禮書로서 보편화된 반면, 喪禮考證은 학문중심의 禮書로서 그 수가 한정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1〉의 禮書중 退溪先生喪禮問答은 退溪先生死後에 趙振이 退溪선생의 말을 적은 것이며, 그 내용이 祭禮중심이다. 이외의 것은 五服에 관한 것이고, 喪祭禮書중 저자가 嶺南學派의 禮書 가운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은 작자미상의 喪禮考證(卍11727)과 安訥의 家禮附贅 등이 있다.

國朝五禮儀와 家禮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國

朝五禮儀는 朝鮮王朝가 成宗朝에 왕조교체의 정치명분과 유교적 왕조경영의 기틀로서 經國大典에 이어 성립(1747)된 禮書로서 그 대상이 왕실뿐 아니라 士大夫·民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서울뿐 아니라 州縣·鄉村까지 포함하고 있는⁷⁾ 것으로 당시 조선 전체의 儀禮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도 각 儀禮의 註解뿐 아니라 圖說을 통하여 형식과 명분의 허구적 대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실천되어지는 禮로서 朝鮮王朝의 儀禮실천에 대한 적극적 정치의지를 보이고 있다.⁸⁾ 또 내용에 있어서도 朝鮮初期 大明集禮·禮記 등 전장문물(典章文物)제도 성격의 禮와 생활관습성격의 朱子家禮의 두 禮를 보완하여 朱子家禮 중심을 이루었다.⁹⁾ 國朝五禮儀는 편집에 있어서 高麗史의 五禮와는 달리 序禮를 독립시켜, 凶禮의 첫항목을 爲皇帝舉哀儀·成服儀·舉臨儀·除服儀로 시작하였다. 또 高麗에서 생략하였던 國恤儀式을 소상하게 전개함으로써 凶禮에서도 儒敎的 儀禮에 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國朝五禮儀를 관할하는 儀禮詳定所는 朝鮮初期

7) 高英津, 앞글, pp.17~70.
 8) 李範稷, 앞책, pp.377~397.
 9) 高英津, '16세기 후반 喪制에서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 p.30, 1991.

禮制의 운영뿐 아니라 정치전반에 걸친 자문과 협조의 기능¹⁰⁾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실행력을 통하여 國朝五禮儀는 조선사회의 생활방식을 佛教·民間信仰의 차원에서 儒敎的으로 전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朝鮮王朝는 기본적으로 절대왕권체제이지만 정치형태는 16세기를 기점으로 朋黨政治를 이루었다.¹¹⁾ 이러한 정치력의 핵심적 실체는 兩班官僚集團으로 朝鮮社會의 정치에서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신진士林이 등장¹²⁾하였다. 士林은 16세기 중반 性理學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古禮의 시행을 강조하여 士林家門의 家禮書를 저술하였다. 士林은 畿湖·嶺南學派로 분류된다.

16~17세기 朝鮮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禮書의 편찬이며, 특히 禮書중 喪祭禮書의 저술이다. 또한 喪祭禮書중에서 祭禮書가 먼저 저술되었는데, 이는 祭禮가 喪禮보다 시행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초기의 禮書는 실행을 위한 생활규범서였으나, 이후 禮書는 시행보다는 학문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喪禮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喪祭禮書로 전환¹³⁾되었다.

고영진은 이러한 喪祭禮書의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朱子家禮 중심이며, 다른 하나는 朱子家禮體制에 禮記중심의 경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자의 대표적 禮書는 喪禮備要이며, 후자의 대표적 禮書는 喪禮考證이라 하였다.

喪禮備要是 申儀慶이 朱子家禮 중심에 古學 학자들의 禮說과 時俗의 제도를 보충한 책을 金長生이 교정하고 加減하여 만든 책으로, 16세기 이후 四禮에 가장 많이 濫據가 되었다. “四禮便覽”도 이 책을 거의 따랐으며, 金長生은 喪禮備要를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장 긴요한 책으로 평가하였다.¹⁴⁾

이러한 喪禮備要是 특히 喪祭禮에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그 실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의 절차가 朱子家禮·國朝五禮儀와 喪禮考證·家禮附贅에서는 初終·復·易服不食·訃·沐浴·襲·飯含·奠·靈座(魂帛)·銘旌·小斂·括髮·大哭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喪禮備要에서는 初終之具·復之具·易服之具 등 ‘-之具’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다른 예서와 달리 喪禮備要의 특성인 실행중심의 禮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喪禮考證은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喪祭禮 항목을 禮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고증하기 위한 것으로, 柳成龍의 것과 金誠一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책은 저자는 다르지만 제목뿐 아니라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도 類似性을 지닌다. 이는 金誠一과 柳成龍이 같은 嶺南學派의 학자로서 이를 통하여 볼 때 喪禮考證이 저자에 의해서 嶺南學派의 禮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柳成龍의 책이 金誠一의 책보다 실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金誠一의 책이 시대적으로 柳成龍의 것보다 앞선다. 이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학문적인 喪禮에서도 時俗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시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喪禮備要是 실용성을 강조하고, 喪禮考證은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禮書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喪禮備要和 喪禮考證은 그 체제에 있어서는 유사하다.¹⁵⁾ 특히, 喪禮에서 初終·復·治棺·沐浴·襲·飯含·奠·爲位·靈座·魂帛·小殮·大殮의 절차가 飯含·爲位 등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喪禮備要和 喪禮考證은 물론 朱子家禮와 國朝五禮儀도 유사한 것을 볼 수

10) 李範稷, 앞책, p.225.

11) 李泰嶽, ‘朝鮮性理學의 歷史的 機能’,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p.131, 1989.

12) 李範稷, 앞책, p.400.

13) 高英津, 앞글, p.104.

14) 재인용, 金長生, “四禮便覽(跋)”, 繼家禮而言禮者在我東 惟喪禮備要爲最切 今士大夫皆遵之.

15) 高英津, 16세기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 14, p.p.107~117, 1991.

〈丑2〉禮書의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 과정에 나타난 절차

書名 小項目	禮記*	朱子家禮	國朝五禮儀		畿湖學派	嶺南學派			
			王	士庶人	喪禮備要	家禮附贅	喪禮考證**		
國恤顧命			國恤顧命						
初終	臨終	初終	初終	初終	初終之具	初終	初終	初終	初終
復	復	復	復	復	復	復	復	復	復
		入喪主		入喪主		入喪主		入喪主	
易服不食			易服不食	易服不食	易服不食	易服不食		易服不食	易服不食
戒令			戒令						
治棺之具		治棺		治棺	訃告書	治棺		治棺	治棺
遷尸之具	遷尸				遷尸之具				
	契齒綴足								
	始死奠								
	幃幃								
訃	命赴拜賻	訃告		訃告		訃告	訃	訃告	訃告
	哭位								
	君使人弔								
	致禭								
	爲銘(銘旌)								
	陳服具	陳襲衣							
沐浴	沐浴, 設冰	沐浴	沐浴	沐浴	沐浴之具	沐浴	沐浴	沐浴	沐浴
設冰之具					設冰之具				
	飯含								
襲	襲尸	襲	襲	襲	襲具	襲	襲	襲	襲
					飯含之具		飯含	飯含	飯含
奠		設奠	奠	奠	奠具	奠		奠	奠
		爲位	爲位哭	爲位哭	爲位之具	爲位		爲位	爲位
			舉臨						
		飯含		含		飯含			
			設冰						
靈座		靈座	靈座-魂帛	靈座	靈座之具	靈座	靈座		
魂帛		魂帛			魂帛之具	魂帛	魂帛	魂帛	魂帛
銘旌		銘旌	銘旌	銘旌	銘旌	銘旌	銘旌	銘旌	銘旌
	設燎								
	陳小斂具								
	奠具經帶								
小斂	小斂	小斂	小斂	小斂	小斂之具	小斂	小斂	小斂	小斂
	遷尸								
					環經之具			環經	
		奠	奠	奠	奠具				
括髮	變摩	刮髮			刮髮	刮髮		刮髮	
免		免座			免座之具	免座		免座	
	遷尸·拜賻								
	設奠	遷襲奠							
	送賻								
	大哭								
	致禭								
	設燭								
	大斂	大斂	大斂	大斂	大斂之具	大斂	大斂	大斂	大斂

* 이성애의 표 참조

** 고영진의 표 참조

있다. (표-2 참조) 이는 시대와 신분에 관계없이 죽은이에 대한 喪禮節次가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5~17세기 國朝五禮儀와 家禮書는 朝鮮社會에서 사회제도가 변화하는 시기에 儒敎社會를 이루기 위한 社會的 產物으로써 지배계층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朝鮮儀禮의 기틀이 된 國朝五禮儀와 그 시행에 있어 일반의례의 지침서로써 조선의 대표적인 儀禮書인 喪禮備要의 喪禮(初終-大殮)服飾연구는 당시의 殮襲衣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禮書에 나타난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 과 정의 服飾

(1) 國朝五禮儀에 나타난 왕의 喪禮(初終-大斂)服飾 (國朝五禮儀〈王〉中心)

15~17세기 禮書중 王의 喪禮는 國朝五禮儀가 지침이 되었다. 國朝五禮儀·喪禮(초종-대렴)의 절차는 國恤顧命·初終·復·易服不食·遷尸·沐浴·襲·爲位·舉臨·舍·設冰·靈座·魂帛·銘旌·告社廟·小殮·大殮 등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國恤顧命-왕이 죽기 전에 大臣들에게 王位를 계승하는 유언(顧命)을 내리고 이에 대신들은 王位를 전위하는 遺敎를 만드는¹⁶⁾ 절차로써, 이는 생존시에 訃音을 알리는 것으로 王位繼承의 정당성을 의미한다.¹⁷⁾ 이 절차에는 휘장과 도끼무늬 병풍이 등장¹⁸⁾하고 있다. 이 도끼무늬는 두 가지의

의미 왕의 결정권과 죽은이의 영혼을 악귀로부터 보호하는 주술적 의미¹⁹⁾를 지니고 있다.

2) 初終-內侍는 새솜으로 입과 코의 위를 살펴 숨을 확인하며 이후에 拭²⁰⁾을 하는 것으로 肉身의 단절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3) 復-'復'은 시신의 靈魂을 부르는 의식으로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애정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뜻²¹⁾하며, 그 행위에 의복을 사용하고 있다. 復을 하는 방법은 왼손은 옷깃(領)을 잡고, 오른손은 허리(腰)를 잡는다. 이는 陰·陽의 측면에서 볼 때 왼쪽이 陽이므로 옷깃이 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의복은 靈魂이 다시 肉身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肉身을 상징하는 대리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內侍는 王의 평상시에 입던 上衣(常御衣)를 사용하여 북쪽을 향해 '上位復'하고 3번 외치고, 復을 한 옷을 屍身 앞으로 던진다.²²⁾ '復' 이후에 尸身의 입을 바르게 하는 契齒와 발을 가지런히 하는 綴足으로 시신을 바르게 처리하고 있다.

4) 易服不食-'初終'에서 肉身의 단절에 이어 '復'에서 靈魂의 단절을 통하여 死者의 죽음을 확인한 후 비로서 산자(生者)가 死者를 위한 예우로써 옷을 갈아 입는 易服에 이른다. 王과 宗親 및 臣下는 冠과 上服(겉옷)을 벗고 素服을 착용²³⁾한다.

5) 戒令-兵曹에서는 호위를, 禮曹에서는 각 절차의 직책을 나누는 절차이다.

6) 沐浴-이 절차는 屍身을 씻는 것으로 찬물인 蕩과 더운 물인 浴을 준비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16)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國恤顧命. 面見發顧命王世子大臣等同受顧命記大臣等退作傳位遺敎.

17)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p356, 1991.

18) 國朝五禮儀·卷之七·凶禮·國恤顧命·設輦帳舖房於思政展.

1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p.215. 東亞出版社, 1992.

20)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初終, 內侍以新綿置口鼻之上爲候既絕內外皆哭.

21) 재인용, 禮記, 檀弓下, 復靈愛之道也.

張三柱, 漢韓大辭典, 教育圖書.

22)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復, ...內侍以常御上服...左執領右執屨北向三呼...上位復...以衣投於前...內侍丞之以函入覆于大行上.

23)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易服不食, ...去冠及上服被髮着素服素鞋麻布履.

뒹는 沐巾 1개와 몸을 씻는 浴巾 2개를 준비한다. 浴巾중 하나는 上體를, 하나는 下體를 위한 것²⁴⁾으로 준비한다. 이는 신체개념에 있어서 前·後의 개념보다는 上·下로 구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대나무(竹)와 나무(木) 빗을 각 하나씩 준비하고, 尙衣院에서 준비한 明衣를 입히는 것으로 明衣란 목욕후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 왕의 경우 白緇의 홑옷이며, 여자의 경우 옷(衣)과 치마(裳)²⁵⁾를 준비한다. 王의 경우는 상의원에서 만든다. 方巾(네모반듯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이불로 덮는다.

7) 襲-‘襲’屍身에게 옷을 입히는 절차이다. 이 ‘襲²⁶⁾’에는 ‘褥·席·枕과 의복으로 大帶·袞龍袍·紵絲褙褙·貼裏·羅圍領·褙褙·帖裏·紅色紵麻圍領·褙褙·帖裏·白緇裹肚·白緇汗衫·白緇袴·白緇襪·한쌍과 그 위에 9稱²⁷⁾의 雜用褙褙가 있으며, 머리장식으로 網巾·首冠이 그 외 부속물로 充耳·瞑目·握手²⁸⁾ 등이 있다. 國朝五禮儀에서 帖裏와 褙褙가 각 袞龍袍와 圍領사이에 3번이나 중복되고 있다. 이는 王의 常服인 袞龍袍의 받침옷으로 褙褙와 帖裏의 사용²⁹⁾ 외에 圍領에 있어서도 帖裏와 褙褙가 받침옷으로써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

8) 爲位哭-王世子·大君以下·王妃·宗親 및 內命婦·外命婦의 위치(자리)를 정하고哭한다.

9) 舉臨-文武百官의 자리를 바깥마당에 설치

하고哭하고 절하는 절차이다.

10) 嗽-司緇寺는 입쌀을, 尙衣院은 진주를 장만하여,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입안에 채우고, 그 위에 구슬을 채우며, 좌·우·중앙의 순으로 한다.

11) 設水-殮한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주위에 얼음을 설치한다.

12) 靈座·魂帛-魂帛에 사용되는 천으로 백색의 비단(白緇) 1匹과 백색비단(白緇)으로 된 부채 2개³⁰⁾를 사용한다. 魂帛은 靈魂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魂을 백색의 천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 銘旌-銘旌은 붉은색 비단을 廣終幅 넓이에 9尺의 길이의 것이며, 금박글씨로 ‘大行王梓宮’ (宰宮이란 왕과 왕비의 棺을 말한다)이라 쓰며, 그 깃대는 대나무를 사용한다. 또한, 깃대의 머리는 龍의 머리를 조각하여 황금색으로 塗色³¹⁾한다.

14) 告社廟-제3일에 大臣들은 社稷·永寧殿·宗廟에 告한다.

15) 小殮-絞布(교포란 염할 때 마지막으로 묶어 매는 베)는 백색의 명주(緇) 1匹을 사용하고, 散衣(행례 때 평소에 입는 옷)와 絳紗袍·斂衣³²⁾稱·삼베줄(麻繩)³³⁾을 사용한다. 이중 殮衣19稱은 겹옷과 겹이불³⁴⁾을 사용한다.

16) 大殮-屍身을 入棺하는 절차로 絞布의 橫者는 백색명주(緇) 2폭을 6조각으로, 縱者는 백색명

24)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家禮附贅, 凶禮, 沐浴, 沐巾一浴巾二上下體各用其一也.

25) 國朝五禮衣, 卷七, 凶禮, 沐浴, ...明衣...白緇單衣, 內喪則具衣裳.

26) ‘襲’이란 의복을 겹쳐 입는 것 즉 重着衣를 뜻한다. “禮記”表之楊也見美也服之襲也完美也.

27) 漢韓大辭典, 教育圖書, ‘稱’이란 衣單複具 즉 “禮記”衣以有裳謂一稱이라 하여 옷옷 중 그 길이가 긴 袍類 1벌에 대한 단위로 즉 1稱이란 1겹을 의미한다.

28)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襲... 大帶一袞龍袍一褙褙一帖裏一次圍領一褙褙一帖裏一次紅色紵絲圍領一褙褙一帖裏一白緇裹肚一白緇汗衫一白緇袴一白緇襪一雙網巾首冠.

29) 재인용, 世宗實錄, 卷百三, 二十六年三月條 參照 柳喜卿, “韓國服飾文化社”,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p.281, 1986.

30)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靈座, ...白緇一匹爲魂帛加遺衣. 白緇造扇蓋.

31)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銘旌, ...絳緞子爲銘旌廣終幅長九尺以泥金緣字曰大行王梓宮. 刻螭頭塗黃金.

32) 劉寬順, 앞글. 19稱의 19는 陽의 終數인 10과 陰의 終數인 9를 나타내는 것으로 天地의 終數를 의미한다.

33)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小殮, ...鋪絳紗袍一襲凡殮衣十九稱.

34)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小殮 殮衣19稱 ...皆用複衣複衾.

주(紵) 1幅을 3조각 내며, 이불과 冕服一襲과 散衣 90稱, 비단 투구로 屍身 전체를 감싸고 宰宮의 입구를 七帶로 매며, 떨어진 치아와 손·발톱 등을 넣고 繡와 도끼(黼)문양으로 棺衣로 덮고 만시 병풍을 치는 것으로 끝을 낸다. 散衣90稱은 겹의 복과 접이불³⁵⁾을 사용한다.

(2) 家禮書에 나타난 一般人의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과정의 服飾(國朝五禮儀〈士庶人〉喪禮備要 中心)

國朝五禮儀·喪禮備要的 喪禮(初終—大殮)절차는 初終·復·易服不食·遷尸·沐浴·襲·爲位·舍·設冰·靈座·魂帛·銘旌·告社廟·小殮·大殮 등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士庶人을 士大夫와 庶人을 포함하고 있다.

1) 初終—國朝五禮儀(王)와 동일하다.

2) 復—國朝五禮儀(士庶人) 喪禮備要 家禮附贅에서 侍子는 死者의 經衣 즉 입던 옷가운데 上服(겉옷)을 사용하여 ‘某人復’하고 3번 외친다. 이때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여자는 자(字)를 부른다.³⁶⁾ 이 上服에 대하여 喪禮備要에서는 士以上은 公服을, 公服이 없을 경우는 深衣를, 일반 庶人은 深衣를 사용하고 없을 경우는 直領衣를 사용했다. 喪禮備要에는 남자는 深衣, 深衣가 없으면 直領衣를 사용한 것으로 深衣의 대응이 直領衣임을 알 수 있다. 의복에서 公服>深衣>直領衣의 순은 의복으로써 죽은자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다. 여자는 大袖(圓衫) 혹은 長襖子를³⁷⁾ 사용했다. 喪禮備要的

長襖子는 당시에 착용을 의미한다. 이외에 復을 하는 방법은 國朝五禮儀(王)와 동일하지만 復을 마치고는 王의 경우와는 달리 옷을 맡아서 처마에서 내려와 屍身을 덮는다.³⁸⁾

3) 易服不食—朱子家禮와 같이 國朝五禮儀(士庶人) 喪禮備要 家禮附贅에는 冠과 겉옷(上服)을 벗고 남자는 上襟하고 華飾을 벗는다. 上襟은 深衣의 앞깃을 帶로 여미는 것이고, 華飾이란 緋緞·繡·紅色·紫色·金·玉·翠類의 裝飾³⁹⁾이며,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다. 여자는 白長衣를 喪服으로 착용한다.

4) 治棺(遷尸之具)—屍身을 가리기 위한 屏風 혹은 白布를 준비하고 없으면 문부채(門扇)를 사용한다.

5) 訃告—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6) 沐浴—國朝五禮儀(王)의 절차와 동일하다. 喪禮備要에는 검은 緋緞이나 繪으로 시신의 머리를 묶고, 좌·우의 손·발톱을 담은 색깔있는 명주(紬)의 작은 주머니(小囊)가 있다.

7) 襲—國朝五禮儀는 ‘襲’에서 纁·褥·席·枕·大帶·黑團領·褶褙(半臂衣)帖裏汗衫袴襪5稱 褶褙(5品以下는 3稱의 雜用褶褙)를 사용⁴⁰⁾한다. 喪禮備要에는 褥·席·枕을 펴고 大帶·深衣(直領衣)方領·褶褙·裹肚·皂襖·汗衫·單袴·襪·充耳·握手·履 등이다. 또한 女喪의 경우 圓衫이 없으며 蒙頭衣 혹은 長襖子를 사용한다. 또한 喪禮備要에서는 각 의복의 재질이 언급되고 있다. 즉 大帶는 白色縉 廣寸으로, 汗衫은 明紬나 綿布

35) 國朝五禮儀, 卷七, 凶禮, 大殮, …鋪衾次鋪冕服一襲次鋪散衣凡殮衣九十稱. 結七帶捧梓宮入…覆以繡黼棺衣方施屏…散衣九十稱…皆用袷衣袷衾.

36)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復, …侍子以死者之上服掌經衣者. 北面以衣三呼曰某人復.

37) 喪禮備要, 申義慶, 卷四, 喪禮, 初終之具…上服 士以上公服或深衣庶人亦深衣無則直領衣婦人大袖(即圓衫)或俗長襖子. 死者之經衣.

38)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復, …畢卷衣降覆尸.

39) 喪禮備要, 卷四, 喪禮, 易服不食, …去冠及上服. 男子披上襟. 餘有服者皆去華飾.

40)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襲. 褥席及枕先布大帶黑團領一褶褙一帖裏一裹肚汗衫袴襪之類於其上凡五稱又以盛網巾幅巾瞑目一握手二履一雙

로, 袴와 襪은 綿布로, 幅巾은 黑色繪이나 明紬를 사용한다.⁴¹⁾ 喪禮備要에는 表衣에 圓衫·方領·深衣·蒙頭衣·長襖子와 일상복으로 汗衫·袴·裳이 나타난다. ‘襲’에서 國朝五禮儀의 黑圓領이 喪禮備要에서는 深衣로, 帖裏는 袍襖로 바뀌었으며, 또 女喪의 의복으로 圓衫·蒙頭衣·長襖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의복의 재질을 언급하고 있다.

8) 飯舍-국조오례의와 동일하다.

9) 爲位哭-곡하는 자리를 정하고 곡한다.

10) 靈座·魂帛-喪禮備要에는 白色의 비단(緇)나 모시(紵)3~4尺⁴²⁾을 사용한다.

11) 銘旌-喪禮備要에서는 깃대로 나무를 사용하고 그 머리에는 鳳凰을 조각하고 채색⁴³⁾했다. 또한 銘旌은 廣終幅의 비단으로 3品以上은 9尺, 5品以上 8尺, 6品以下는 7尺으로 ‘某官某公之柩’ 혹은 관직이 없으면 ‘隨生時所稱’로 생시의 이름을 따른다.⁴⁴⁾ 家禮附贅에서는 깃대를 대나무⁴⁵⁾로 사용하고 있다.

12) 小殮-國朝五禮儀는 褥·席·枕·絞布·橫子·衾과 散衣·圓領·殮衣19稱이다. 褥·席·枕을 펴고, 布絞(는 彩色布1폭의 양끝을 3으로 나눈다)를 펴고, 이불(衾)을 펴고, 散衣·圓領 19稱을 小殮床 위에 편다.⁴⁶⁾ 喪禮備要는 褥·席·枕·屏·細布·衾·散衣·上衣·19稱이다, 이 중 絞布

는 가는 무명포(細布)21尺을 각 사용한다. 散衣란 雜衣로써 袍襖종류의 의복⁴⁷⁾이며, 上衣란 圓領과 直領종류⁴⁸⁾라 하고 있다.

13) 大殮-灰의 위에 七星板을 더하고 그 위에 布褥席을 大殮衣를 탁자위에 준비한다. 布絞의 橫者5를 棺안에 놓고, 다음에 布絞의 縱者3을 그 위에 편다. 다음에 이불(衾)을 펴고, 다음에 圓領을 다음에 散衣30稱을 편다.⁴⁹⁾ 喪禮備要에서는 纊·席·褥·枕·細布·衾·散衣·上衣는 小殮의 條와 같으며 喪大記에는 士는 30稱, 大夫는 50稱이나 없으면 소유한 것에 따른다.⁵⁰⁾

이상과 같이 살펴본 喪禮(初終-大殮)의 절차와 服飾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喪禮(初終-大殮)가운데 王의 경우 王位를 계승하는 國恤顯命, 喪禮를 진행하는 직책을 맡기는 戒令, 신하들이 뜻하는 자리를 정하는 舉臨의 절차가 부가된다. 이외의 절차는 王과 一般이 모두 初終·復·易服不食·沐浴·襲·飯舍·爲位·靈座·魂帛·銘旌·小殮·大殮으로 유사하다. 여기서 전자는 王에게 신하 등의 산자가 진행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죽은이에 대한 절차로 이는 신분 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喪禮節次를 반 겐넵(Van Gennep)의 通過儀禮(Rites of Passage)의 전역치의례(Preliminary

41) 喪禮備要, 卷四, 喪禮, 襲, ...大帶, 深衣(圓衫)方領。(無深衣用直領衣. 女喪圓衫或蒙頭衣或長襖子). 袴襖裹杜袍襖汗衫單袴襪. 充耳瞑目握手履一雙冒.

42) 喪禮備要, 卷四, 喪禮, 魂帛之具, ...白緇或紵布三四尺所以爲魂帛.

43) 喪禮備要, 卷四, 喪禮, 銘旌之具, ...杠頭刻木爲鳳頭塗以采.

44) 喪禮備要, 卷四, 喪禮備要, 銘旌之具, ...廣終幅三品以上九尺五品以上八尺六品以下七尺(造禮器尺) ...令善書者大書曰某官某公之柩無官則隨生時所稱.

45) 家禮附贅, 卷三, 喪禮, 立銘旌, ...以絳帛爲銘旌廣終幅三品以上九尺五品以上八尺六品以下七尺書曰某官某公之柩. 生時所稱以竹爲杠如

46)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小殮, ...鋪褥席及枕先鋪絞或彩一幅 其兩端爲三, 次鋪衾於絞之上次鋪散衣次鋪圓領凡殮衣十九稱.

47) 申儀慶, 喪禮備要, 卷四, 喪禮, 初終之具. 散衣即雜衣袍襖之屬.

48) 申儀慶, 喪禮備要, 卷四, 喪禮, 初終之具. 上衣如圓領直領之類.

49) 國朝五禮儀, 卷八, 凶禮, 大殮, ...加七星板鋪褥席于其上陳大殮衣衾于堂. 先布絞之橫者五於棺中, 次布絞之縱者三於其上, 次鋪衾次鋪圓領次鋪散衣凡三十稱.

50) 喪禮備要, 卷四, 喪禮, 大殮之具 “喪大記” 士三十稱大夫五十稱無則隨所有.

minal Rites) 역치의례(Liminal Rites) 후역치의례(Postliminal Rites)⁵¹⁾의 세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喪禮(初終-大殮)절차중 初終·復·易服不食·沐浴 등에서 死者는 육체와 영혼의 단절에 이어 沐浴을 통하여 이승과의 分離를 마감하고 있다. 이는 이승과의 分離를 나타내는 전역치의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沐浴을 통하여 死者의 생존시의 의복을 모두 벗고 沐浴 후 새로운 의복인 明衣를 착용하고 있다. 이 明衣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기까지의 轉移를 의미한다고 본다.

襲(陳襲衣)·飯含·爲位·靈座·魂帛·銘旌은 死者가 착용할 복식의 준비 및 死者를 알리는 절차로서 死者를 저승에 알리는 역치의례라 볼 수 있다.

小殮·大殮은 입관을 하기 위하여 屍身을 새로운 의복과 부속물로 감싸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棺은 저승을 의미하며, 入棺은 저승으로의 統合을 의미하는 후역치의례라 할 수 있다. 이 때 死者의 시신을 싸고 덮는 의복과 부속품은 저승에 統合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역치儀禮에서의 의복인 殮襲衣는 저승에서의 死者의 의복임을 의미한다.

喪禮備要중 ‘復’에서 經衣는 上服을 사용하며, 이 上服은 士以上公服或深衣庶人深衣無則直領衣로 신분에 따른 의복을 사용하고, 經衣란 死者의 생존시의 착용하던 의복이다. 즉 經衣는 死者의 생존시의 지위에 따라 의복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한다. 또 이 시기에는 深衣가 士以上の 有官者는 물론 서민에게도 착용되었던 의복임을 의미한다.

喪禮(初終-大殮)服飾에서 ‘復’에서 죽은자의

의복과, ‘魂帛’에서 백색천(白縗)은 각각 死者의 肉身과 魂의 상징물로서 대리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復’에서 ‘左執領右執腰’는 方向을 통하여, 또 ‘小殮’의 殮衣 19稱에서는 陰·陽을 통한 天地의 終數를 통하여 陰·陽思想을 의복행위에 적용시켰음을 볼 수 있다. ‘沐浴’중 ‘浴巾二上下體各用其一也’로 신체를 前·後보다는 上·下중심으로 구별하는 당시의 身體觀을 알 수 있다. ‘銘旌’에서 ‘刻螭豆塗黃金·刻鳳凰豆彩塗’ 등으로 깃대머리에 死後世界를 인도하는 동물로 龍과 鳳凰의 鳥類를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死後世界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죽은 자의 靈魂을 부르는 ‘復’과 죽은자를 나타내는 ‘銘旌’에서 왕은 ‘常御衣’ ‘大行王宰官’을 일 반인은 ‘經衣’, ‘某官某公之柩’ ‘生年所稱呼’등의 죽은자의 신분에 따라 용어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혼을 상징하는 魂帛은 王은 1匹로, 왕과 일반은 3~4尺의 길이로써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또 死者를 나타내는 銘旌은 신분에 따라 3品以上은 9尺, 5品以上은 7尺, 5品以下는 7尺으로 또 깃대의 길이는 이 銘旌의 크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死者의 신분에 따라 크기의 大·小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死者에게 생존의 신분이 用語와 形態 등으로 저승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3. 15~17세기 殮襲衣의 의미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殮襲衣란 死者가 이승을 떠나 저승에 統合하는 후역치의례의 복식으로, ‘襲’ ‘小殮’ ‘大殮’의 절차에서 시신에게 입히고 싸

51)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53.

Van Gennep(1873~1959)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民族學者이며, 民俗學者이다.

通過儀禮를 儀式과 儀式의 질서와 내용에 따라 分離, 轉移, 統合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역치 의례(Preliminal Rites) - 그 이전 세계에서 분리되는 의례

역치 의례(Liminal Rites) - 전이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후역치 의례(Postliminal Rites) - 새로운 세계에 통합하는 의례를 의미한다.

는 服飾과 부속품을 말하며, 殮襲衣는 ‘喪中死者 襲殮皆用吉服’⁵²⁾으로 吉服을 사용함으로써 죽음을 이승에서의 단절이 아닌 저승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며, 이를 吉服으로 상징하고 있다.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를 정리하면 表-3과 같다. 즉 國朝五禮儀를 통한 15세기 왕의 殮襲衣는 袞龍袍·絳紗袍·冕服一襲·團領·袴襪·帖裏·汗衫·袴·裳·襪·瞑目·握手·充耳·纜·席·褥·枕·衾·絞布 등이며, 일반의 殮襲衣는 團領·袴襪·帖裏·汗衫·袴·襪·瞑目·握手·充耳·纜·席·褥·枕·衾·絞布이다. 喪禮備要를 통한 17세기 일반의 殮襲衣는 深衣·團領·袴襪·直領衣(여자의 圓衫·蒙頭衣·長襖子·長衣)·汗衫·袴·裳·襪·瞑目·握手·充耳·纜·席·褥·枕·衾·勒帛·絞布 등이다.

이와같이 殮襲衣에 있어서 의복종류의 변화는 袍類에서 나타난다. 王은 袞龍袍가 계속되나, 일반남자의 團領은 團領惑 深衣惑 直領衣로, 여자의 圓衫은 圓衫惑 蒙頭衣惑 長襖子惑 長衣로 그 변화가 나타나며, 시기에 따라 15세기에는 團領과 첩리가, 17세기에는 深衣·團領袴襪·直領衣·袍襖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표-3에 나타난 殮襲衣의 의복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表-4와 같다. 殮襲衣는 表衣類·赤古里類·下衣類·殮具로 구성되며, 의복과 함께 부속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의류는 冕服一襲·絳紗袍·袞龍袍·團領袴襪·深衣·直領衣·帖裏·袍襖·蒙頭衣·長襖子·長衣이며, 저고리류는 汗衫, 하의류에 袴, 그 외 염구류는 網巾·首冠·幅巾·充耳·瞑目·握手·履와 褥·席·枕 등이다. 각 의복의 설명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각 ‘襲’ ‘小殮’ ‘大殮’의 절차에 나타난 의복간의 관계만을 다루겠다.

襲: ‘襲’의 의복은 大帶·袞龍袍(團領/深衣)·

答履·帖裏(袍襖)·裹肚·汗衫·袴·襪·9稱袴襪·網巾·首冠(幅巾)·充耳·瞑目·握手·履一雙 등으로 屍身에게 직접적으로 입히는 의복과 부속품의 일습이다. 이러한 襲衣에서 구체적으로 의복명칭이 언급되고 있다. 또 그 나열순서가 포류->상의류->하의류->머신의 순서로 일정하다. 이는 死者에게 의복을 입히는 착장순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복의 착용과 각 의복간의 관계를 살펴봐왔으나 이는 앞으로의 연구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襲’가운데 의복의 나열순서는 모두 大帶·袞龍袍(團領·深衣·直領衣)袴襪·帖裏·裹肚·汗衫·袴(勒帛)襪로 유사하다. 襲衣의 大帶에서 이르는 순서는 착용순서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의복외에 大帶와 裹肚 그리고 喪禮備料에서 勒帛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배가리개인 裹肚는 汗衫 다음에, 그리고 大帶는 表衣類의 다음에 나타나고 있으며, 喪禮備要에서 勒帛이 汗衫과 袴 以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勒帛은 의복을 입히기 이전의 신체에, 裹肚는 赤古里類와 下衣類를 착장한 신체에, 大帶는 표의류를 착장한 신체위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신체를 보정하거나 혹은 의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裹肚를 袍類 착용이전에 착용한 帶라고 하면 상례비요에서 나타나는 袍襖는 裹肚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袍類보다는 저고리류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袍類의 나열이다. 즉 袍類인 團領·袴襪·帖裏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더우기 王의 경우는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으며, 그 나열에 있어서 袞龍袍·袴襪·帖裏次團領·袴襪·帖裏次團領·袴襪·帖裏로 ‘次’를 사용하여 의복간의 구분을 하고 있다. 여기서 團領·袴襪·帖裏가 함께 구분되는 것은 團領·袴襪·帖裏가 一組로써의 의복

52) 金仁淑, 朝鮮王朝 王의 小殮, 大殮, 窆梓宮衣對에 대한 研究, “服飾” 5호, p.208.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士庶人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는 당시 袍類를 3점으로 重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重着에서 특히 襟襖는 團領의 받침옷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喪禮備要에서 襟襖는 半臂衣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團領대신에 深衣를 사용할 때도 ‘深衣或團領·襟襖或直領衣’로 團領과 襟襖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襟襖에 대해서 ‘襟襖卽丞團領者’로써 團領에 딸린 의복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 시기에 帖裏가 團領의 아래 옷이며, 동시에 團領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直領衣는 團領의 받침옷 보다는 代用的 의복인 동시에 帖裏보다 큰 옷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후 喪禮備要의 大殮에서 上衣는 ‘團領直領之類’라 언급하고 있으므로 ‘上’자가 겉옷을 의미할 때 團領과 直領은 일상으로 착용하던 袍로 袍類중에서는 의례적인 의복인 동시에 같은 종류의 의복임을 의미한다.

표의류 가운데 國朝五禮儀 王條에는 冕服一襲·絳紗袍·袞龍袍·團領襟襖·帖裏 등이 나타나며, 일반인에는 團領·襟襖·帖裏와, 喪禮備要에는 일반남자의 團領·深衣·直領衣·襟襖·袍襖와 여자의 圓衫·蒙頭衣·長襖子·長衣가 나타난다. 여기서 公服종류의 袍類를 儀禮表衣라 하고, 일상에서 착용하는 表衣를 日常表衣라 구분할 때 國朝五禮儀에서 冕服·絳紗袍·袞龍袍는 王의 儀禮表衣로, 團領·襟襖·帖裏는 당시 왕과 일반의 공통表衣로 추정할 수 있다.

喪禮備要에서는 國朝五禮儀의 團領이 深衣或團領或直領으로 변화하고, 帖裏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深衣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반인의 儀禮表衣이면서 유교의 상징의복으로 발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후자는 시기적인 차이로 15세기에 주로 착용하던 帖裏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첩리착용에 있어서 변화를 의미하며, 이외의 袍襖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토복식을 통해서 볼 때도 壬亂以前의 帖裏가 이후 점점 사라지는 것과는 일치하며, 또 임진·병자 양란때 융복으로 왕과 백관 모두가 帖裏를 착용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帖裏의 사회적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더우기 김인숙의 연구에서 17세기~19세기초(景宗-純祖)의 表衣로 도포·창의·중적막·장외가 등장⁵³⁾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김인숙은 남자포로써 長衣의 착용을 밝혀내고 있다. 또 유관순의 연구에서 儀錄錄에 나타나는 표의류가 中致莫과 長衣로 변화하는 것⁵⁴⁾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의 一般表衣가 그 생존시기의 착용되었던 表衣로 적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1744년의 國朝續五禮儀와 金長生의 家禮輯覽에서는 帖裏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문헌이 시대적으로 앞선 문헌의 답습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金長生은 申儀慶과 동문수학한 同時代의 학자이지만 喪禮備要보다 늦게 家禮輯覽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그 내용에서 喪禮備要를 기준으로 하면서 國朝五禮儀를 첨가시킨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박성실은 殯殿都監儀軌의 儀註가 실행보다 형식적인 기록⁵⁵⁾임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

‘襲’에서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王은 袞龍袍와 首冠을 사용하고 일반인은 團領과 幅巾의 사용함으로써 王과 一般이라는 신분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王은 表衣類를 9벌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인은 3벌 사용하고 있다. 雜用襟襖에 있어서도 王은 9稱인 반면 士庶人은 5稱이며, 5品以下는 3稱을 사용함으로써 王과 一般뿐 아니라 일반인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襲

53) 金仁淑, 앞글, 表1 참조.

54) 劉寬順, 앞글, 表 참조

55) 朴聖實,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1)’, “服飾” 16, p.51, 1991.

衣는 死者의 신분과 생존시기에 따라 의복의 종류가 변화한다.

小殮; 小殮에는 褥·席·枕·絞布·橫子·衾·散衣와 殮衣 19稱이 공통이다. 여기에 王은 絳紗袍가 부가되고 있다. 殮衣 19稱이란 陰·陽의 終數를 통하여 죽음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國朝五禮儀에서는 王과 一般 모두 殮衣 19稱으로, 喪禮備要에서는 上衣19稱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喪禮備要에서 '上衣圓領直領之類'라 하여 그 내용이 袍類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殮衣는 袍類의 의복이라 할 수 있다. 또 喪禮備要에서 散衣는 '雜衣袍襖之類'라 하는 것으로 散衣도 袍類의 여러 종류의 의복임을 의미한다.

小殮衣의 殮衣 19稱은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이 가운데 散衣와 殮衣는 上衣類의 의복이며, 散衣는 그 종류가 袍襖이고, 殮衣는 圓領·直領의 袍로써 散衣보다 殮衣가 의례적인 의복이라 할 수 있다.

大殮; 大殮에는 褥·席·枕·絞布·橫子·散衣가 신분에 따라 王은 冕服一襲과 殮衣 90稱, 國朝五禮儀 士庶人은 圓領과 散衣30稱으로 왕과 일반으로만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喪禮備要에 있어

서는 士는 30稱, 大夫는 50稱으로 大夫와 士의 차별을 볼 수 있다. 또한 喪禮備要 '無則隨所有'라 하여 각 신분의 殮衣의 부족에 대해서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각 신분에 따른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배계층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였던 사회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大殮에서는 王과 一般으로, 一般은 大夫와 士로 신분을 나누고 이러한 신분에 따라 의복의 수를 90稱·50稱·30稱으로 제한하여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殮의 전체에서 왕의 의복을 통해서 볼 때 襲·小殮·大殮에서 그 表衣의 종류가 袞龍袍·絳紗袍·冕服으로 점점 大禮衣服임을 알 수 있다. 小殮과 大殮의 차이는 의복의 數에 의한 것뿐 아니라 의복의 종류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殮襲衣에서 襲衣는 死者의 신분과 생존시기에 따라 의복의 종류가 변화하며, 小殮衣는 死者의 신분에 관계없이 殮衣19稱으로 동일하다. 또 大殮衣는 死者의 신분에 따라 의복의 많고 적음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襲보다는 小殮에서, 小殮보다는 大殮에서 의례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禮書의 殮襲衣에 나타나 衣仗 및 附屬品

國朝五禮義	王	襲	大帶/袞龍袍·袴·帖裏·圓領·袴·帖裏·圓領·袴·帖裏·裹肚·汗衫·袴·襪·9稱袴·網巾·首冠·充耳·瞑目·履一雙	
		小殮	褥·席·枕·絞布·橫子/衾/散衣/絳紗袍一襲散衣19稱	
		大殮	褥·席·枕·絞布·橫子/衾/冕服一襲/散衣殮衣90稱	
	士庶	襲	大帶/黑圓領·袴·帖裏·裹肚·汗衫·袴·襪·5稱袴·網巾·幅巾·充耳·握手·履一雙 (半臂衣)	(5品以下는 3稱袴)
		小殮	褥·席·枕·絞布·橫子/衾/散衣/圓領殮衣19稱	
	喪禮備要	人	襲	大帶/深衣·袴·裹肚·袍襖·袴·勒帛·襪·望巾·幅巾·瞑目·握手·履一雙·冒(圓領·袴·直領衣)
小殮			纊·褥·席·枕·屏風·細布·衾/散衣/上衣19稱	
大殮			纊·褥·席·枕·衾/散衣/上衣士30稱, 大夫50稱 無則隨所有	

〈표 4〉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의 유형별 분류

	表衣										上·下衣			帶			頭衣			殮具										
	冕服一襲	絳紗袍	哀龍袍	圓領	深衣	褶襖	帖裏	袍襖	圓衫	蒙頭衣	長襖子	汗衫	袴	襪	大帶	裹肚	勒帛	網巾	首冠	幅巾	充耳	瞑目	握手	履	纊	褥	席	紋布	橫子	衾
國朝五禮儀	王	○	○	○	○	○	○				○	○	○	○	○	○		○	○		○	○	○	○	○	○	○	○	○	○
	士庶人				○	○	○				○	○	○	○	○	○		○	○		○	○	○	○	○	○	○	○	○	○
喪禮備要				○	○	○		○	○	○	○	○	○	○	○	○		○	○		○	○	○	○	○	○	○	○	○	○

Ⅲ. 맺음말

朝鮮의 유교적 기틀이 된 國朝五禮儀와 조선의 일반예의 실행에 지침이 된 喪禮備要의 喪禮중 初終에서 大殮과정의 服飾을 통하여 이 시기의 殮襲衣 종류와 殮襲衣의 신분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1. 喪禮(初終-大殮)절차에 나타난 殮襲衣의 성격은 Van Gennep의 通過儀禮過程에서 前易置儀禮중 ‘復’절차에서 ‘經衣’를 통하여 死者의 영혼과 육신의 分離인 죽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易置儀禮중 ‘沐浴’에서 沐浴을 통한 완전한 分離이후 새로운 ‘明衣’를 입으므로 저승으로의 轉移를 나타낸다. 또 後易置儀禮에서는 陰·陽思想의 終數인 19稱의 ‘殮襲衣’를 착용함으로써 死者의 이승에서의 分離이후 저승에서의 완전한 統合을 의복으로 상징하고 있다. 殮襲衣는 死者가 저승에 통합되는 後易置儀禮의 服飾으로 저승에서의 死者의 복식이이며, 喪禮절차중 ‘襲’ ‘小殮’ ‘大殮’에서 屍身에게 입히고 싸는 복식과 부속품을 말한다.

이외에 喪禮服飾에는 陰·陽思想, 身體觀, 靈魂分離思想등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陰·陽思想은 ‘左執領右執腰’로 陰·陽의 方向을 통하여 의복의 부위를 상징하고있으며, 또 絜의 19稱으로 天地의 終數인 19를 통하여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목욕수건을 ‘浴巾二各上下體用一’로 사용하여 신체를 上下로 구분하는 身體觀, 또 服飾은

‘復’에서 육신의 대리매체로 의복을, 또 ‘魂帛’에서 영혼의 대리매체로 白布를 사용하고 있으며, 銘旌의 깃대에 龍과 鳳凰의 조류를 조각함으로써 靈魂分離의 死後世界觀을 반영하고 있다.

2. 殮襲衣의 종류는 國朝五禮儀를 통한 15세기 왕의 襲衣는 哀龍袍·絳紗袍·冕服一襲·圓領·褶襖·帖裏·汗衫·袴·裳·襪·瞑目·握手·充耳·纊·席·褥·枕·衾·紋布 등이며, 또 일반의 襲衣는 圓領·褶襖·帖裏·汗衫·袴·襪·瞑目·握手·充耳·纊·席·褥·枕·衾·紋布이다. 喪禮備要를 통한 17세기 일반의 襲衣는 深衣·圓領·褶襖·直領衣(여자의 圓衫·蒙頭衣·長襖子·長衣)·汗衫·袴·裳·襪·瞑目·握手·充耳·纊·席·褥·枕·衾·勒帛·紋布 등이다. 襲衣는 死者의 신분에 따라 왕은 哀龍袍·絳紗袍·冕服一襲, 일반은 深衣·圓領·直領衣로 신분의 차이가 왕과 일반으로 대별되었다. 여기서 15세기에는 圓領·褶襖·帖裏가 17세기에는 深衣·圓領·褶襖·直領衣·袍襖로, 19세기에는 中致莫과 長衣로 변화한 것으로 복식의 종류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小殮衣는 殮衣19稱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대령의는 왕과 일반, 일반은 大夫와 士에 따라 의복의 數(90稱·50稱·30稱)가 달랐다.

喪禮服飾중 襲衣와 殮具는 신분에 따라 15세기에서는 5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17세기에서는 3품·5품·6품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士庶인에

있어서 차이를 엄격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층의 차이는 이미 士喪禮 朱子家禮 등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조선의 의례의 지침이 되던 두 종류의 禮書에서 喪禮備要를 비롯한 家禮書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 일반인의 지배층인 士林의 입지가 조선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3. 喪禮服飾의 변화가 지나는 의미는 첫째, 15~17세기 殮襲衣를 포함한 喪禮(初終-大殮)服飾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死者의 신분이 작용하며, 이에 의한 종속변수인 의복의 종류, 재질, 크기의 大·小, 양의 多·少가 결정되었다. 이는 이 朝鮮中期社會가 신분사회임을 의미하며, 그 차이가 王과 一般으로, 그리고 一般은 死者의 官吏로써의 지위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朝鮮中期社會가 王을 中心으로 한 官吏身分社會임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後期에 와서 殮襲衣종류가 一般化(統一化)되었다는 것은 朝鮮社會의 신분상의 위계질서가 희미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朝鮮後期에 있어서 이렇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앞으로 연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15~17세기 殮襲衣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殮襲衣(壽衣)의 차이가 다만 재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이는 死者의 富의 정도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바로 우리시대의 특징인 資本主義社會가 반영된 변화로 해석된다.

둘째, Van Gennep의 通過儀禮過程에서 死者가 죽음을 통하여 이승을 떠나 저승에 統合하기 위한 後易置儀禮의 복식으로써, 死者의 생존시의 복식인 동시에 저승에서의 복식인 殮襲衣로 死者의 생존시의 의복종류를 사용하는 의미는 아마도 죽은 자에게 이승에서 평소에 친숙해진 옷을 입혀 보냄으로써 저승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기원하였다고 본다. 또 死者에게 이렇게 생존시의 의복을 착용시킨 까닭은 이승에 이어 저승에서의 지속적인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너머, 未知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상쇄시키고자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의도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國朝五禮儀, 奎章閣 영인본
2. 朱子家禮, 國立圖書館 무구재 159-93
3. 申義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1258
4. 金長生, 疑禮問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4117, 1646
5. 家禮附贅,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 5569, 1628
6. 四禮訓蒙,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 3609, 1674
7. 家禮輯覽,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관번호 6913, 1685
8. 韓國經濟史學會,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86
9. 李泰鎮, 朝鮮儒敎社會史論, 知識產業社, 1990
10. 許捲洙, 朝鮮後期南人과 西人の 學問的 對立, 法仁文化社, 1993
11. 韓佑肋, 李泰鎮,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一志社, 1993
12. 李萬烈, 韓國史年表, 역민사, 1993
13.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1991
1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6
15. 朝鮮史研究會 엮음, 韓國의 歷史, 한울, 1985
16.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韓國의 服飾, 1982
17. 韓國文化象徵辭典, 東亞出版社, 1992
18. 高英津, '16세기말 四禮書의 成立과 禮學의 發達, 韓國文化 12,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1
19. '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韓國史論" 21, 1989
20. 張哲秀, '中國儀禮가 韓國儀禮生活에 미친 影響,' "문화인류학".
21. 金惠淑, 禮記에 나타난 喪禮文化研究, 服飾16호, 1991
22.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 23. 高福男, '朝鮮中期的 服飾變遷에 대한 要因分析', *숙대논문집* 25, 1984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24. 李聖愛, 中國喪禮考, 論叢59집, 1호,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1.
- 25. 成者嬉, '斂·襲衣', "관동대학교 논문집" 제8집, 1980.
- 26. 朴聖實,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1)

ABSTRACT

A Study on Chosun period burial clothing (斂襲衣) in 15th to 17th Centur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Chosun burial clothing in 15th to 17th Centuries by examining the costumes recorded in the ryesu (ritual books).

Referring to description of the mourning-ritual in the the *Kujoohryei*(국조오례의), the

sangryebiyo(상례비요), they exhibit little difference in the ceremonial procedure, this implies that the the *Jujagarye*, the *oldest* Chinese *Ryesu*, had influence on the manner of Chosun.

The *Kujoohryei*(국조오례의) written-in 15th Century played a paramount role in domestication of burial costume(염습의) which had been performed by the *Jujagarye*(주자가례), and the *sangryebiyo*(상례비요) etc written between 16th and 17th Centries promoted to generalize the mourning-ritual to the ordinary people.

In the period, ryemsupui(염습의, clothing for the dead) is costumes for 'sup'(습), 'sofyum'(소렴), and 'daeryum'(대렴)' in the mourning ceremonial procedure, and for postliminal rites in the rites of passage. The reason of using clothing which they put on the dead's own daily clothing stands for eagerness for lasting life not only in this world but also in the other world.